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 (Eidgenössische Technische Hochschule Zürich) 교환학생 후기

전기정보공학부 한이주

1. 생활 전반

먼저 스위스에서의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꼭 취리히 공대가 아니더라도 스위스로 교환학생들 가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 주거

취리히 공대(ETH) 교환학생을 오게 되면 ETH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줍니다. 처음 기숙사를 배정하기 전에 설문을 제출하는데, 이때 꼭 preference를 적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전기과와 컴퓨터공학과가 포함된 Zentrum campus에 가까운 곳을 원한다고 적었고, Sonneggstrasse 27 건물을 배정받았습니다. (Physics, Biochemistry 등의 department는 Höggerberg campus에 있어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들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Zentrum campus가 도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 사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Sonneggstrasse 27의 경우 ETH 메인 건물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4명이 플랫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건물 자체는 굉장히 낡았지만 위치와 가격 등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기숙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수 인원 플랫에 굉장히 만족했는데 대형 기숙사와 비교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소수 인원이 사용하는 만큼 관리가 잘되고 private space가 유지되며, 개인 물품 관리가 용이합니다. (특히 냉장, 냉동 보관 식품들) 저는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4인 플랫에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소수 인원이 주방과 화장실을 공유하는 만큼, 플랫메이트들과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지만, 대형 기숙사만큼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만나려면 social event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동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 대형 플랫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플랫은 굉장히 친해져서 다같이 여행도 가고 주말마다 저녁도 같이 해먹었지만, 위층 플랫의 경우 청소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주방을 더럽게 쓰는 친구 한 명으로 인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B. 식비

취리히의 외식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학생 식당의 메뉴는 6-10프랑 사이이고,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 15프랑에서 30프랑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접 밥을 해먹게 됩니다. 저의 경우 학생 식당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항상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마트 물가는 고기의 경우 한국보다 비싼 편이고, 채소나 과일의 경우 크게 더 비싸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아시아 식재료 (쌀, 향신료, 소스)보다 유럽 식재료가 더 저렴하고 품질이 좋습니다. 한식을 고집하지 않고 적당히 해먹는다면 식비 부

담이 그렇게 크진 않으나, 요리하는 것을 어렵게 느낀다면 매끼를 챙겨 먹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왔을 때 제외하고 한인 마트 혹은 아시아 마트를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식비 절약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 그런지 아껴 썼을 때는 일주일에 30-40프랑 내외로 지출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있을 때는 직접 밥을 해먹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취리히에 온 뒤로 매끼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의 재미를 찾았고 이 또한 한국에서 하지 못할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형 마트에 가야 구할 수 있는 유럽식 식재료들을 쉽게 집 앞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나름의 재미였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함께 요리를 해먹으며 싸고 맛있는 다양한 레시피를 주변 친구들과로부터 얻을 수도 있습니다.

C. 보험

스위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스위스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만 25세 미만 학생들의 경우 조금 더 저렴한 학생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주며, 저의 경우 가장 싼 swisscare를 선택해 한 달에 61프랑을 보험료로 지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착 후 ETH 측에서 안내해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D. 교통

학교에서 멀리 사시는 경우 regional pass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집이 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 따로 정기권을 구매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SBB 어플에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사실 트램이나 버스에서는 티켓을 거의 체크하지 않지만 무임승차가 적발될 경우 100프랑의 벌금을 내야 하니 정기권이 없으신 경우 꼭 타기 전에 티켓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언급하셨듯이 half fare card를 구매하시면 스위스 내 교통에서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 통신

저는 한국에서 30일짜리 유심칩을 미리 사가서 첫 달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swype 유심칩을 사용했는데, 스위스 내에서는 무제한 인터넷을 제공하며 한 달 요금은 20프랑이었습니다.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하루에 3프랑을 더 내야 하는데, 해외 여행을 자주 다니신다면 요금이 꽤 나올 수 있습니다.

F. 여가

ETH에서 ASVZ라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뿐 아니라 크로스핏 비슷한 운동 프로그램들도 잘 되어 있고, 복싱,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암벽등반 등의 스포츠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호수에서 요트를 타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들었으나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사람들이 가장 널리 즐기는 여가 활동은 등산과 스키입니다. 기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이국적인 자연풍경을 주말마다 감상할 수 있습니다.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등산 시즌, 12월에서 4월 사이에는 스키 시즌입니다. 또 취리히 중앙에 큰 호수가 있는데, 여름에는 이 호수에서 수영하고 피크닉을 하러 많이 갔습니다.

취리히에 놀거리가 많이 없기도 하고, 물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스위스인들과 교환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거나 자연 속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편입니다. 또 친구들과끼리 모임을 가질 때, 평소처럼 식당이나 술집, 카페를 가기보다는 기숙사에 모여 같이 음식을 해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수업

A. 독일어 수업

개강 전 2주 동안 매일 진행되는 Intensive German Course가 있습니다. 취리히는 대도시이고 외국인이 많아서 영어만 사용해도 어려움이 없지만, 기초 독일어를 알고 있으면 더 편한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다양한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 더욱 추천합니다.

B. 전공 수업

ETH 교환학생은 총 20 Credit 이상을 들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과의 경우 전체 Credit의 2/3 이상을 D-ITET (전기전자공학부)에서 들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학부과정 수업은 대부분이 독일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많지 않고, 석사과정 수업을 주로 들어야합니다. 때문에 최소한 학부 3학년 1학기까지는 마치고 교환학생을 가는 것이 수업에서 얻어갈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수업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 Machine Learning on Microcontrollers

Machine learning inference를 edge environment에서 수행하고, 최적화해보는 수업입니다. 강의보다는 실습 위주로 진행되며 실제 FPGA 보드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한 뒤 학기 말에 1-2인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시험을 보지 않고 프로젝트만으로 성적이 부여되며, Verilog를 이용해 직접 하드웨어를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Model 자체에 집중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Machine learning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부담 없이 들어볼 수 있는 수업입니다. 반대로 하드웨어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시면 다른 수업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슷한 강의명의 하드웨어 디자인 수업이 있다고 들었으나 정확한 과목명은 모르겠습니다.)

ii. Seminar in Computer Architecture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의 논문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한 학기동안 각자 하나의 논문을 정해, 50분 분량의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발표 내용에는 논문 내용 뿐 아니라, 논문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 그리고 토의 주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화된 주제에 대해 영어로 50분동안 발표를 한다는 것이 부담되긴 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해 추천합니다.

학부 과정에서는 전공 지식을 흡수하는 데에 집중해 수동적으로 공부를 해왔었는데, 최신 기술 관련 논문을 읽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능동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과 영어로 전공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경험은 서울대에서 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iii. **Project and Seminar**

D-ITET에서 학부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수업으로, ETH의 연구실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주제의 작은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 수업과 다르게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선호도를 작성해 수강 신청하며, 이 선호도를 고려해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배정해줍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연구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직접 supervisor를 찾을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배정되고, 3-6 credit정도의 작은 프로젝트들 (일주일에 4-6시간 투자) 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볍게 프로젝트에 참여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3. 소감

먼저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스위스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이며, 대부분의 것들이 아주 깨끗하고 안전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성에서 나오는 여유 덕분인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건강이나 환경,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이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배워갈 부분이 많았습니다. 스위스는 또한 아름답게 보존된 자연 풍경으로 유명한 곳인데, 산과 숲, 호수 등 자연과 함께 보낸 시간들 자체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ETH는 세계 각국의 공과대학에서 온 학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문화적 다양성을 접하게 되면서 사고의 틀이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대화하며 그들 각각이 어떤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학문, 더 나아가 삶을 대하는 서로 다른 관점들을 나누면서 그 동안 제가 살아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물가가 비싸고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나라일 수 있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ETH라는 학교가 제공하는 많은 연구 기회들은 스위스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업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취리히 공대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좋은 경험하게 해 주신 공과대학 총동문회와 공과대학 국제 협력실에 감사드립니다.